

## 공지사항

1. 사제서품을 축하드립니다.

뮌헨교구에 소속된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께서 오는 6월 27일 사제서품을 받으십니다. 새 사제님의 앞날에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시도록 공동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품식: 6월 27일(토) 오전 9시, 프라이징 대성당  
(Domberg 36, 85354 Freising, Freisinger Dom)

- 첫미사: 6월 2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나자렛 성당(Babarossastr. 3, 81677 München)

2. 견진교리 - 날짜: 7월 5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공동체실  
견진 대상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다른 신자분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참석 바랍니다.

3. 제 36 차 유럽한인 성령쇄신 목상회

- 지도신부: 김재덕 베드로 - 음악봉사: 신상욱 안드레아  
- 장소: Kardinal Schulte Haus, Overather Str. 51-53,  
51429 Bergisch Gladbach  
- 일시: 2026년 9월 2일(수) - 9월 5일(토)  
- 참가비: 독방 270 유로, 일반: 250 유로, 학생 및 수도자 190 유로  
- 신청: 우시현 아그네스 - 신청 마감: 2026년 7월 12일(100명선착순)

● 주일 미사(오후 3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성당  
Kreuzstr. 10, 80331 München(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

● 홈페이지 QR 코드: (사진을 찍으세요.)



● Pfarrbüro: Dachauer Str. 23 80335 München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49 89 2605729



## 뮌헨 한인 본당 Koreanische Katholische Gemeinde München

■ 연중 제 12 주일      교중미사 오후 3시 2026년 6월 21일 ■

오늘은 연중 제 12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맡겨 전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결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합시다.

###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10-13**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10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1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12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13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15

형제 여러분, 12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13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15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총만히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6-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26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28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